

에베소서: 함께 읽는 성경 공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교회의 공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에베소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고 그분을 통해 화해한 백성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제시합니다. 은혜로 받는 구원은 선행으로 이어지며,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는 평화의 모범이 됩니다. 후반부는 이 정체성이 말, 일, 예배, 관계, 악에 대한 저항으로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개인적일 뿐 아니라 공동체적입니다.

편지를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읽기

편지는 바울의 이름을 밝히며 그가 투옥된 상태라고 제시합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로마의 구금과 연결합니다. 학자들은 바울의 직접 저작, 연대, 에베소를 넘어 회람되었는지를 논의하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일부 초기 사본의 수신 주소에 도시 이름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확정된 여행 일정처럼 위장하지 말고 드러내야 합니다. 골로새서와의 밀접한 관련을 살피면서, 편지 자체의 신학적·목회적 논증을 읽으세요.

성경 참조: 엡 1:1 · 엡 3:1-13 · 엡 6:19-24

출처: primary, brown

논증 따라가기

1-3장은 찬송, 기도, 은혜로 받은 구원, 민족 사이의 적대 제거를 차례로 다룹니다. 4-6장은 그렇게 형성된 공동체를 성숙과 변화된 삶으로 부릅니다. 가정에 관한 지침은 고대의 불평등한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강압이나 노예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부의 역할을 다르게 이해하지만, 그리스도의 자기 내어주심과 위협의 금지는 해석의 필수 기준으로 남습니다.

성경 참조: 엡 1:3 - 엡 2:22 · 엡 4:1 - 엡 6:24

출처: primary

그리스도 안의 복과 소망

엡 1:1-23

첫 찬송은 자녀 됨, 구속, 용서, 성령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합니다. 이어지는 기도는 신자들이 자신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타난 능력을 이해하도록 구합니다. 선택에 대한 전통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추측성 확신보다 감사와 확신에 찬 의존을 낳으려는 본문의 의도에서 시작하세요.

생각해 보기

이 기도에 따르면 신자들은 이미 받은 선물에 관해 무엇을 더 이해해야 하나요?

은혜는 화해한 백성을 만듭니다

엡 2:1-22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선행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논증은 한때 배제되었던 이방인들과 그리스도께서 나뉜 민족 사이에 이루시는 평화를 다룹니다. 성전의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처소를 설명합니다. 이를 유대인의 정체성을 폄하하거나 이스라엘의 약속의 역사를 지우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기

은혜에서 선행으로 나아가는 흐름은 배제에서 소속으로 나아가는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드러난 목적과 기도

엡 3:1-21

이제 알려진 비밀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그 목적을 섬기며, 그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힘을 구합니다. 이 장은 교회가 자신을 책임에서 면제된 존재로 상상하기보다 하나님의 관대한 목적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도록 초대합니다.

생각해 보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는 일은 왜 지위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분열된 공동체를 더 깊이 굳게 세울 수 있나요?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기

엡 4:1-32

연합은 동일한 은사를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역은 몸 전체를 준비시키고, 새로워진 삶은 진실함, 분노, 노동, 말을 변화시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지침은 정직함을 다른 사람의 유익과 연결합니다. 일은 자기 안락함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나눌 기회를 만듭니다.

생각해 보기

어떤 말의 습관이 그저 불만을 쏟아 내는 대신 공동체 전체의 성장을 도울까요?

불평등한 가정 속의 사랑

엡 5:1 - 엡 6:9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 예배, 결혼, 자녀, 노예 상태의 사람들에 관한 지침의 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호 복종과 부부에게 다르게 주어진 지침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합니다. 남편은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하고 주인은 위협을 버려야 합니다. 결혼이나 종교적 권위는 학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고대 가정 안에서 노예제를 다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기

그리스도의 자기 내어주심은 서술된 각 관계의 권력 남용에 어떻게 도전하나요?

진리와 기도로 굳게 서기

엠펙 6:10-24

전신갑주의 이미지는 진리, 의, 평화,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모읍니다. 이 싸움은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취급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꾸준한 기도는 다른 신자들과 바울의 증언을 포함하며, 마지막 두기고의 소개는 이 우주적 언어에 실제적인 인간관계를 연결합니다.

생각해 보기

열거된 갑주의 각 부분은 일상에서 영적 저항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나요?

출처

- [primary] Ephesians; primary biblical text. Reading references only; no Bible text is reproduced in this resource. <https://ebible.org/eng-web/EPH.htm>
- [brown] Raymond E. Brown,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Doubleday, 1997), chapter 28. Background and scholarly discussion; not an endorsement of every interpretation in this study.

자체 제작한 자료의 글과 이미지: CC BY 4.0. 성경 본문과 제삼자 자료는 제외됩니다.

Pauline Letters · CC BY 4.0 · <https://paulineletters.com/ko/explore/resources/study-ephesians>